

국경과 이념의 체화: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으로 본 쿠바 발레*

노영재**

I. 서론

II. 서사학,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의 이해

III. 「복서와 발레리나」 다큐멘터리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인간은 태어나 말을 배우고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낸다. 구전이나 활자와 같은 문학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를 접하는데 익숙하며 다양한 매체가 쏟아내는 사건과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열광하며 탐닉하기까지 한다. 영문학자 브라이언 보이드(Brian Boyd)는 진화론적 시각에서 볼 때 이야기의 기원은 인간이 서로를 관찰하려는 강렬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사회적, 도덕적 감정과 가치를 끌어들이 조율함으로써 협력을 키우고, 사회적 행동의 견지에서 당면한 현실을 넘어 생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조성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¹⁾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직역하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위’를 지칭하지만 단순히 발화(發話)하는 것만으로 스토리텔링이라 하지 않는다. 화자는 줄거리, 인물, 관점이 투영된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듣는 이에게 친숙한 언어로 다가간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전통적으로 스토리텔링은 인문학적 차원에서 먼저 인식하게 되었고, 언어적 친밀함의 특성을 살려 아동교육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현대 문화에서 스토리텔링은 세대별, 분야별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여 활용되고 있다. 문학평론가 크리스티안 살몽(Christian Salmon)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여겨졌던 스토리텔링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사실상 큰 성공을 거두었던 점을 주목하면서 스토리텔링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정치, 문화, 직업의 경계를 초월하는 담화양식이라 역설한다.²⁾ 이야기에 녹아드는 인간의 습성을 반영한 스토리텔링은 21세기 디지털 문명과도 궤적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8560)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특별연구원, balletyj@gmail.com

1) B. 보이드 (2009), 『이야기의 기원』, 남경태(역)(서울: 휴머니스트, 2013), pp.533-534.

2) C. 살몽 (2008),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 정신을 포맷하는 장치』, 류은영(역)(서울: 현실문화, 2010), pp.21-22.

매체를 이용해 문화콘텐츠 개발, 기업문화의 혁신 등 상업적 영역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의 광범위한 현대적 응용에 주목하여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춤담론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복서와 발레리나, Boxers and Ballerinas」로 다큐멘터리 속 쿠바 발레의 목소리를 통해 국경 및 이념의 체화를 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4년 영화감독 마이크 케이힐(Mike Cahill)과 배우 브릿 말링(Brit Marling)³⁾이 공동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쿠바 현지,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한 4명의 실존 쿠바 복서와 발레리나의 삶을 다각도로 들여다본다. 아바나와 마이애미에서 이들이 그리는 삶과 이상은 특정 직업군의 애환이나 열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스페인 식민지와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세계무대에서 고립된 쿠바 사회에서 특정 스포츠(복싱, 야구 등)와 발레는 무엇보다 자국 내 인기 있는 문화로, 또 베일에 싸인 국가의 존재를 끊임없이 외부에 알리는 전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다큐멘터리가 초점을 맞춘 이 직업군은 남성과 여성, 과거와 현재,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까지 정치, 역사, 사회,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상징적 영역으로 다가온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다큐멘터리는 특정 매체 양식을 통해 생산 혹은 구축하는 춤문화의 다원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복서와 발레리나」는 발레를 통해 폐쇄적 사회상에 가려진 갈등과 모순을 서술하고 있으며, 21세기 실존 내부인과 망명자의 시각에서 발레의 가치 및 지향점을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때 남성의 상징으로 체화되는 복서의 영역 또한 춤추는 여성의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으로서 인간관계와 문화 구조의 상징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상이 되는 사회 전체를 통찰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미 발레는 영화에서 낯선 소재가 아니며 현재 영화 관련 국내 무용학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상업적 극영화를 대상으로 미학, 역사학, 사회학 등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댄스 필름 중 댄스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기호학적 분석이나 매체의 서술방식에 집중한 소수의 연구가 있다.⁴⁾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상업 자본이나 상업영화의 지배적 내러티브⁵⁾에 의지하지 않고 춤문화를 통해 사회문화적 이슈를 파고드는 독립 다큐멘터리이며, 춤작업의 기록이나 공연의 영상화와 같은 댄스 필름의 범주에도 속하지는 않는다. 기술적 측면에서 동일 혹은 유사한 매체라 하더라도 주제 전개 방식이나 가치 지향점이 다른 다큐멘터리 속 춤문화에 대한 분석이나 비평적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범위와 시각을 확장하여 극영화 혹은 공연 기록물과는 다른 형식과 속성을 지닌 영상매체의 서술방식에 집중하고자 하며,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발레의 다면성

3) 조지타운대학교 동문인 케이힐과 말링은 「복서와 발레리나」를 통해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데뷔하였다. 본 작품은 씨네퀘스트 산호세 영화제(Cinequest Film Festival), 브레켄리지 영화제(Breckenridge Film Festival)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아바나, 플로리다, 샌프란시스코, 엠네스티 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데뷔는 비평가들의 호평과 함께 성공적이었으며 이후 케이힐과 말링은 「Another Earth, 2011」, 「I Origin, 2014」등 최근까지 독립, 판타지 영화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이들은 감독 혹은 배우로 선댄스 영화제(Sundance Film Festival), 시체스-카탈로니안 국제 영화제(Sitges-Cataloni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등 유수의 영화제와 저널 리스트들의 상을 받으며 현재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4) 이영주(2018), 댄스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기호학적 의미: 뉴욕시티발레단의 <city.ballet.>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지』 76, pp.169-185; 한지영, 김말복(2018), 댄스 다큐멘터리 영화, 「댄싱 베토벤 *Dancing Beethoven*」(2016)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한 댄스필름 논의, 『무용예술학연구』 71, pp.1-25.

5) 상업 자본을 기반으로 원할한 마케팅과 흥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화 내용이 전개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개인, 공공 기금, 모금 등으로 제작되는 독립 영화는 상업적으로 관습화된 내용보다는 작가의 의식이나 대안적 내용이 투영되는 경향이 짙다.

을 이야기하고 특정한 의미를 창출하는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이를 통해 세계적 주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한 무용문화 속 정치적 담론에 관해 의미 있는 쟁점과 논의를 제 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영상 분석이 병행되며 다음과 같은 구성과 내용으로 진행된다. II장에서는 연구 대상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로 스토리텔링의 이론적 근간인 서사학과 다큐멘터리의 서사적 특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복서와 발레리나」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4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다큐멘터리가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역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레가 유입되고 발전되어온 쿠바 사회와 문화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다음 등장인물, 서사구조, 영상의 상징과 표현 방식 순으로 살펴봄으로써 「복서와 발레리나」 스토리텔링의 내용과 형식의 특성을 파악할 것이다. 이후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쿠바 발레에 체화된 국가 담론과 이념의 상징을 읽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무용학 연구의 일환으로 복싱보다는 발레가 지닌 상징성을 읽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스토리텔링의 양식으로 파악되는 의미들을 비평적 시선으로 규명하여 ‘사회적 행위의 표명과 소통’으로서의 발레를 논의하는 데 의의를 둔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의 또 다른 축인 복싱은 발레의 상대역(counterpart)으로 두고 발레의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활용되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II. 서사학,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의 이해

본 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의 학문적 근거와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은 오늘날 문화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친숙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 자체에 대한 학문적 개념 정립이나 연구의 영역은 모호한 실정이다. 스토리텔링은 인류의 오랜 경험적 용어이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대중적, 소비적, 기교적인 속성이 더해지면서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말하자면 메타적인 용어가 되었으며, 더구나 지금껏 우리가 익히 사용해오던 내러티브라는 용어와 때로 변별적인 때로 상보적인 관계로 하여 그 속성은 물론 범주를 한정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 미묘한 용어가 되었기 때문이다.⁶⁾ 내러티브가 문자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되었다면 스토리텔링은 내러티브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오늘날 다양한 매체가 만들어내는 담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스토리텔링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우선 관련 대상인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와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서사학(Narratology)의 주요 흐름을 간략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서사학은 언술과 행위의 집합체인 서사(narrative)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요소들의 기술과 구조를 연구한다. 서사학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부터 언어학, 심리학, 기호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출발하여 구조주의, 기호학으로 발전한 20세기 현대 서사학은 언어의 본성에 주목하여 서사 내용의 유형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러시아 민속학자 블라디미르 프로프(Vladimir Propp)의 민담분석과 프랑스 구조주의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신화적 분석 이론 등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6) 류은영(2009),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14, p.242.

내용의 보편적 구조를 연구한 것이 특징이다. 1928년 출판된 프로프의 『민담 형태론』은 민담의 구조를 31가지 기능으로, 등장인물의 행동 영역을 7가지로 분류하여 서사의 구조를 세분화함으로써 구비문학 분야의 구조 분석 연구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프로프의 연구는 문학뿐 아니라 언어학과 인류학 등 타 학문의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레비-스트로스의 신화적 이항대립 개념은 인물 간 대립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서사 속 주요 갈등을 논의하고 신화라는 서사에 담긴 심층적, 구조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구조주의 서사 이론은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의 심층적 구조 분석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되지만, 실제 인물과 배경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사에 관한 인식 전환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내러티브와 현대의 스토리텔링이 취하는 관점과 형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프롭이나 레비-스트로스의 서사 분석이 구전문학(민담), 언어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다양한 학문과 예술 분야로의 응용은 내러티브의 개념과 범위의 확장을 가져다주었다. 달리 말하면 서사 연구에서 내러티브는 문학 작품과 같은 가공된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재현하고 모방함으로써 인간의 사고, 지식과 실재, 의식,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내러티브는 오늘날 인간 삶의 경험을 담고 있으며 세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단순한 모방이 아닌 상징적으로 조직화하는 활동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조주의 서사학은 내러티브를 정적이고 완결성 있는 구조로 보고 구술적 담화 형식에 주목하였다면 이에 반해 현대의 스토리텔링은 다감각, 다매체를 통해 내러티브 행위(narrating)의 역동성과 상호소통적 담화 작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 행위의 상징성 혹은 창의성 그리고 다감각적 형식은 다큐멘터리라는 매체의 특성과 긴밀히 연관된다. 영화 서사학은 영상이 주는 복합적 의미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규정한다고 할 때, 다큐멘터리의 내러티브는 다양한 촬영기법을 통해 특정 현실을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언어 전달 행위뿐 아니라 시청각적 요소들이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고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게 한다. 실제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역사학자로도 활약 중인 셰일라 커런 버나드(S. C. Bernard)는 다큐멘터리 내러티브의 특성과 연출 방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버나드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극적인 형태의 픽션 영화를 기술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용되지만 캐릭터, 행위, 주제, 시대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끌어들이거나 정서적으로 좀 더 강렬한 이야기를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영상에도 적용된다고 언급한다.⁷⁾ 영상 속에서 나레이터의 음성이 직접 삽입되는 것은 이야기의 정보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영상은 샷(shot), 씬(scene), 시퀀스(sequence), 인터뷰, 음악, 음향효과 등 여러 요소들이 함께 얽혀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큐멘터리의 매력은 실제 인물, 장소, 사건을 통해 삶의 경험과 사고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있다. 종종 낯선 곳으로 관객을 이끌고 시각적 자극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케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큐멘터리 자체가 곧 객관이고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실화를 가감 없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영화라는 매체는 ‘일련의 선택적 결정과 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의 경우 이러한 과정은 ‘실제의 창의적인 배열’을 의미하며 제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 이야기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버나드는 다큐멘터리에서 관객에게 주목받는 창의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기 위해 집중해야 할 점으로 1) 질문과 함

7) S. C. Bernard(2006), Story First: Narrative in Documentary, *Studentfilmmakers* April, p.22.

게 시작할 것, 2)기준이 되는 내러티브를 찾을 것, 3)내러티브 열차를 찾을 것, 4)정직할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단계는 스토리텔링의 소통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면적인 명제보다는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일깨우는 참신한 질문이 시작의 첫걸음이며 거기에 동력을 부여하여 다감각과 상호작용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의 기본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정하는 것으로 다큐멘터리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이후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촬영과 편집으로 이어지는 ‘시각적으로 생각하기’의 필수적인 토대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⁸⁾

이어지는 본론의 영상 분석은 기존 서사학이 지향하였던 평면적인 이야기 분석에서 나아가 입체적이고 열린 구조를 지향하는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의 창의적 접근에 주안점을 둔다. 「복서와 발레리나」는 기존 극영화가 전달했던 이념 편파적 영웅 만들기, 역경을 이겨낸 감동의 드라마와 같은 극적인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을 회고하면서 제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전통적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과도 차별화하였다고 진술하며 상징적 이미지 배열과 콘텐츠 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⁹⁾ 따라서 대상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이 전하는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내러티브의 기본적 내용과 구조를 정리하고 이를 확장시켜 현대 스토리텔링의 다감각과 상호소통의 특징이 드러나는 본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복서와 발레리나」 다큐멘터리 분석

「복서와 발레리나」는 4명의 젊은 복서와 발레리나의 이야기를 통해 쿠바의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미국-쿠바 양국 간 대립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다큐멘터리 속 발레와 복싱은 같은 문화적 유산을 이어받았지만 다른 국적을 가진 인물들이 겪는 상이한 경험을 구체화하는 상징적 영역이다. 따라서 다큐멘터리가 담고 있는 생생한 현장과 삶의 진술은 정치적 이념과 역학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예술의 의미를 숙고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를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먼저 쿠바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시작으로 등장인물 연구, 내러티브 구조, 영상표현 방식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이야기하기’라는 내용과 행위의 결합이라는 스토리텔링의 기본 개념에 충실하여 등장인물과 내러티브 구조 분석은 이야기 내용의 측면에서, 영상표현 방식은 이야기하는 행위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를 통합하여 다큐멘터리가 구현하는 쿠바 발레의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쿠바 사회와 문화

영상 분석에 앞서 본 절에서는 영상 속에 상징적으로 삽입된 쿠바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주요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아프로쿠반(Afro-Cuban)으로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이 정의되어지는 쿠바는 다양한 인종과 사상이 혼재하는 이종혼합의 문화를 지닌 나라이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 이래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겪은 유사한 식민지 과정처럼 16세기 스페인 군대

8) Ibid., pp.23-27.

9) Cinequest(2010), *Boxers and Ballerinas*. San Jose: Cinequest(DVD, 83 minutes).

에 의해 백인에게 점령된 10만 쿠바 원주민은 참혹한 박해를 거쳤으며, 식민체제 안에서 새로운 이중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카리브해에 위치하며 신대륙과 구대륙의 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지리적 장점은 다양한 외부 문물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수많은 문물과 유행을 받아들여 기존의 것들과 조화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중요한 문화적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¹⁰⁾ 19세기까지 스페인의 통치하에 있었던 쿠바는 이후 미국-스페인 전쟁의 결과, 20세기에는 미국의 사실상 통치하에 놓이게 된다.

혼종성이 쿠바 문화를 이루는 근간이라 한다면 현대의 쿠바는 혁명과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특수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다큐멘터리의 시간적 배경은 21세기이지만 쿠바와 미국이란 공간적 배경 설정은 다분히 쿠바가 걸어온 격동의 정치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기에 쿠바의 혁명사는 수 세기를 이어 온 혼종의 문화와 다시 결부되어져 새로운 의미와 쟁점을 일으킨다. 미국과의 긴밀한 통치 관계 속에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거듭된 군부 쿠데타는 쿠바의 정치적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였고, 1959년 친미 바티스타 정권을 종식시킨 카스트로 혁명은 쿠바를 명실공히 아메리카 대륙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하였다. 카스트로 형제(Fidel & Raúl Castro)와 체 게바라(Che Guevara) 등이 이끈 혁명은 정치적 변동뿐만 아니라 토지 개혁과 산업 국유화 등 광범위한 경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카스트로 정권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미국과의 분쟁은 쿠바가 친소련 정책을 취하는 양상이 되었고,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쿠바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공산 독재 정권에 반하는 쿠바인의 미국으로의 탈출은 끊임없이 발생해왔으며 쿠바는 미국의 주도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처해졌다.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던 정치적 격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발레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까지 쿠바 발레는 95세가 넘는 나이에도 쿠바국립발레단(Ballet Nacional de Cuba)을 이끌고 있는 알리시아 알론소(Alicia Alonso)로 대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명 이전 불안한 쿠바 내 분위기에 돌부리고 재능있는 쿠바 발레 무용수들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아바나 태생의 알론소는 1940년대 미국에서 정상의 발레리나로 명성을 이어가던 중 카스트로 정권의 설립과 동시에 쿠바로 돌아가 쿠바 발레의 부흥에 힘쓰게 된다. 당시 혁명에서 승리한 카스트로는 평등한 사회구조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을 만드는 데 헌신하였다.¹¹⁾ 따라서 카스트로는 2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알론소에게 제시했고 이는 쿠바 국립 발레학교와 발레단 재건에 든든한 후원이 되었다. 혁명의 지지자였던 알론소는 당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던 미국에서는 퇴출되는 동시에 그녀의 발레는 쿠바를 대표하는 예술로 거침없이 발전하였다.¹²⁾ “발레는 우리 혁명 문화의 근간”¹³⁾ 이라는 학생들의 구호처럼, 카스트로 정권의 비호 속 발레는 미국 자본주의와 결탁했던 옛 정부의 잔재를 지우고 누구나 예술 교육을 평등하게 누려 자국 문화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 혁명 정부의 문화 정책을 대변하였던 것이다. 미국과 등을 돌린 정세 속에서 이후 쿠바의 발레는 냉전의 기류를 타고 자연스레 구소련과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게 되

10) 신정환(2000), 쿠바 문화의 기원과 쿠바 문학,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1, p.93.

11) Public Broadcasting Service, <<http://www.pbs.org/independentlens/mirrordance/balletcuba.html>, 2018. 5. 2.>.

12) 이 시절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는 서구와 단절된다. 1958년 알론소는 *Dance Magazine*으로부터 올해의 무용수 상을 받았지만 이후 그녀의 이름이 수록된 모든 출판물이 퇴출되었다. 쿠바에서 미국으로 오는 우편물은 반송되거나 이름이 담긴 페이지는 뜯긴 채 봉인되기도 하였으며, 1960년 ABT 기념공연을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서구 발레단으로부터의 공연 초청도 단절되었다(O. Roca(2010), *Cuban Ballet*(Layton: Gibbs Smith), p.81.).

13) Horizontes, <<https://www.youtube.com/watch?v=o0tdR4NtM60>, 2018. 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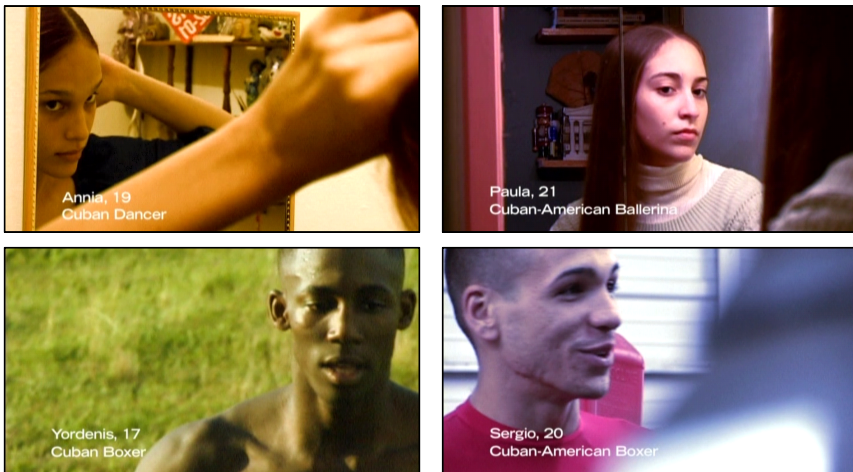
었다. 이처럼 발레는 국가적 자부심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와 예술적 성취에 대한 열망이 맞물려 발레 무용수들은 끊임없이 서구로 탈출하는 현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¹⁴⁾

2. 등장인물 연구

영화를 줄거리가 주도하는 역할과 인물이 주도하는 역할로 크게 나눌 때 「복서와 발레리나」는 아바나와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줄거리와 인물의 비중이 모호한 경우도 있으나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면서 제작자는 자신의 관점을 투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복서와 발레리나」 속 4명의 인물은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되고 성별, 직업, 거주지(국적)가 정확하게 이항대립을 이루며 극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각 인물의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등장인물의 정보

이름	나이	성별	거주(국적)	직업	소속, 특징
Annia	19	여	아바나(쿠바)	발레리나	예술학교 출신으로 현 Radio & Television 발레단 단원
Yordenis	17	남	아바나(쿠바)	복서	체육학교 학생이자 차기 올림픽을 준비하는 복서
Paula	21	여	마이애미(미국)	발레리나	전 쿠바국립발레단 프리마 발레리나 출신 어머니의 뒤를 잇는 발레리나
Sergio	20	남	마이애미(미국)	복서	전 쿠바 올림픽 대표팀 복싱 코치 아래에서 프로 데뷔를 준비하는 복서



〈그림 1〉 등장인물

14) 냉전의 종식과 미국의 계속된 대립으로 야기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술적 성취 역시 망명의 주된 동기라 할 수 있다. 저작권료 관계로 쿠바 발레의 레퍼토리는 「지젤」이나 「백조의 호수」 같은 19세기 고전발레에 머물러 있었기에 무용수들은 예술적 성장을 갈구하며 새로운 도전을 원했다. 따라서 세계적 기량을 자랑하는 쿠바 무용수들은 종종 자국 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지닌 국제적인 서구 발레단에 매료되었고 해외 순회공연은 망명의 통로가 되었다. 쿠바의 발레 무용수들에게 망명은 경제적 문제와 예술적 열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었지만 이들 예전 언제나 국적과 혈연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National Public Radio. <<https://www.npr.org/2014/06/14/321952981/why-cuban-ballet-dancers-risk-defecting>, 2018. 3. 22.>.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명확한 이항대립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게 한다. 각각의 요소가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요소가 그와 쌍을 이루는 대립구조를 통해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남/여, 발레/복싱, 쿠바/미국, 사회주의/자본주의 등 본 다큐멘터리 속 등장인물로 읽을 수 있는 대립구조는 분명하다. 이항대립의 인물 설정은 극적인 전개의 시발점이 되며 동시에 주인공과 그의 주변 인물과의 관계 및 사회적 맥락을 읽게 하는 기본적인 면서도 필수적인 골격이 된다. 여기서 발레는 남성에 반하는 여성의 영역, 여성의 행위로 규정되는 한편, 상반된 사회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예술적 경험을 재현하는 주요 매개가 된다. 반면 <표 1>에서 알 수 있듯 복싱 선수 요르데니스는 아니아와, 그리고 세르지오는 폴라와 짝을 이루어 전통적인 젠더 구도를 드러낸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쿠바의 아니아와 요르데니스, 그리고 미국의 폴라와 세르지오를 나란히 두어 다른 국가와 이념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한 제작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다큐멘터리의 초반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소개는 이러한 대립적 구조를 바탕으로 인물들의 일상적 장면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니아와 폴라는 발레 클래스 속 모습을, 요르데니스와 세르지오는 훈련으로 몸을 단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의 행위이지만 인물의 첫 장면에 포함된 가정, 거리, 연습 장소들은 그들이 속한 지리적, 문화적 환경을 파악하게 하며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의 방향을 암시한다.

3. 다큐멘터리 서사구조 및 내용

본 절에서는 스토리텔링의 전략과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속 이야기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각 시퀀스 별로 어떠한 장면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시퀀스 간의 전체적인 배열 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본 다큐멘터리가 지닌 서사 구조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표 2> 참조).

영국 다큐멘터리 제작자 존 그리어슨(John Grierson)은 다큐멘터를 ‘실제의 창의적 재현(creative treatment of actuality)’이라고 정의한다. 가장 함축적이고 간결한 이 정의는 다큐멘터리의 속성을 잘 드러낸다. 즉 다큐멘터리는 ‘사실(fact)’이나 ‘진실(truth)’이 아닌 ‘실제(actuality)’라는 재료를 활용하되, 그것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방식은 창의적으로 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그리어슨이 의미하는 창의성은 예술가의 영감과 같은 신비로운 영역을 지칭한다기보다 전체적(systemic), 단계적(staged), 공동적(collaborative)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다.¹⁶⁾ 따라서 다큐멘터리는 현존하는 실체에 영상의 극적 요소와 구성이 더해져 이야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의미를 형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영화는 상영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상자도 함께 동행하는 속성을 지니며 이야기는 필수적으로 전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버나드는 이러한 이야기의 구조를 이야기의 골격을 이루는 내러티브 열차,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시각에서 쏏-썬-시퀀스의 특징으로 논의한다. 내러티브 열차는 일종의 영화의 실타래 혹은 줄거리라 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다듬어 모든 살을 빼고 남은 골격을 말한다. 몇 문장으로 압축되어질 수 있는 내러티브 열차는 제작의 목적이나 동기가 세부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극의 내용과 지향점을 간략히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열차’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내러티브 열차는 영화의 심장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을

15) 오원환(2014), 『다큐멘터리 스타일』(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viii.

16) S. Kerrigan, and P. McIntyre(2010), The ‘Creative Treatment of Actuality’: Rationalizing and Reconceptualizing the Notion of Creativity for Documentary Practice, *Journal of Media Practice* 11(2), p. 126.

지니고 있으며 관객을 몰입시켜주는 도구가 된다. 본 다큐멘터리의 내러티브 열차는 다음과 같이 축약될 수 있다.

〈표 2〉 주요 서사 장면 및 내용

#	중심인물	에피소드 장면
1	Annia	집에서 발레 스튜디오로 출근 발레 클래스 내부 모습
2	Yordenis	학교에서 야외 훈련
3	Paula	집에서 발레 스튜디오로 이동 발레 클래스 내부 모습
4	Sergio	자동차 정비소 한쪽에서 체력을 단련하며 친구랑 담화
5	Yordenis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 교육 정책과 이념 묘사
6	Annia	발레단의 정책, 해외 공연 참가를 둘러싼 고충 토로
7	Sergio	자신의 집과 이웃들 월드 챔피언, 프로 운동선수에 관한 의견
8	Paula & Rosario	유명 발레리나 출신인 어머니 로자리오의 망명 스토리 회고 '기회'에 관한 쿠바와 미국의 차이점
9	Annia	발레 스튜디오 여행의 어려움과 관련된 정치적 배경 멕시코 공연 춤 연습
10	Yordenis	실전 연습 경기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올림픽 대표선수 선발 경기 출전을 계획
11	Sergio	생계유지로서의 운동 현실적 문제로 프로 데뷔를 앞둔
12	Paula	어머니가 운영 중인 발레 스튜디오의 현실적 어려움과 도울 계획을 모색
13	Annia & 남자친구	저녁 데이트 해외공연과 가족의 소중함
14	Yordenis & 친구	산티아고 경기와 가족에 관한 대화 복싱 선수의 망명 실태
15	Sergio &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가족들과 저녁 식사
16	Paula & 친구들	공연 경험에 대한 대화 어머니가 기획하는 공연의 현실
17	Annia & 남자친구	해외여행과 이별에 관하여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이미지
18	Yordenis의 친구들	비밀 인터뷰
19	Sergio	친구들과 시합의 승리를 다짐
20	Paula	연습실, 어머니의 망명 스토리, 워싱턴 발레단 오디션 신청
21	Annia, Yordenis Paula, Sergio	인물별로 자신의 임무(공연, 시합, 오디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을 담은 장면들이 빠르게 교차하며 끝을 맺음

복서와 발레리나는 같은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90마일의 지리적 거리와 40년 이상의 정치적 대립으로 떨어져 있는 4인의 젊은이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마이애미와 아바나에

거주하는 복서와 발레리나의 생활을 추적하며 개인에게 있어서의 자유와 인간의 권리인 국적에 대한 의미를 조명한다.¹⁷⁾

내러티브 열차와 장면에서 알 수 있듯 서사의 내용은 4인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을 추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활을 추적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이때 개인의 초상은 사회적 쟁점과 갈등에 대한 예로써 존재한다. 공통적인 행위로 구성하되 쿠바와 미국이라는 장소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각 인물의 모습을 교차하며 현실의 모습을 담아낸다. 서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등장하는 전지적 나레이터의 설명을 거의 배제하고 등장인물간의 직접적인 대화나 독백, 뉴스, 그리고 행위로 대부분 채워진다. 따라서 현실적인 공간에서 감상자는 현재의 관점과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서사의 화두는 ‘자유’이며 시작은 “왜 사람들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쿠바를 떠나는 것일까?”와 같은 직접적인 주제 제시로 시작한다. 발레리나와 복서의 일상 묘사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공연 혹은 대회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일어나는 내면의 고민과 갈등으로 고조된다. 아니아와 폴라의 일상으로 채워진 발레 서사는 연습과 공연의 시, 공간을 묘사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동일한 민족 정체성을 가진 두 사람이 겪는 다른 갈등을 제시한다. 이야기는 사건을 통해 각 인물이 가족, 연인, 장소와 함께 고민의 심연을 들여다보게끔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유와 국적에 대한 물음과 의미를 새겨보는 장치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아니아는 멕시코 공연을 마치고 아바나로 되돌아오고, 요르데니스는 국가대표 자격을 얻는다. 한편 폴라는 워싱턴 발레단의 견습 단원으로 선발되지만 어머니가 있는 마이애미로 돌아가고, 세르지오는 프로선수 데뷔전에서 승리한다. 이처럼 사건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실존하는 젊은 주인공들의 고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암시하며 끝을 맺는다.

4. 영상의 표현 방식과 상징

가. 대조와 병치의 시퀀스 반복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은 문자나 구술의 스토리텔링과는 달리 영상이라는 입체적 구조물이며 편집과 배열을 통해 창의적인 작품의 구조가 완성된다. 내러티브 열차에 의해 이야기가 출발하여 앞으로 나아가지만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시청각 요소가 혼재된 감각적 구조이며 감독에 의해 일정한 질서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감상자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미를 동시에 흡수하여 이야기 맥락을 인지하고 감정적인 역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복서와 발레리나」는 각 주인공들의 에피소드를 시퀀스화하여 4명의 이야기를 균일하게 배분, 이야기의 열개를 엮어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장면이 결합된 개별적 시퀀스는 전체 이야기의 틀 속에서 독자적인 뉘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내러티브 열차의 전진에 기여해야한다.¹⁸⁾

전문적인 전지적 나레이터나 해설을 위한 보이스 오버¹⁹⁾가 두드러지지 않고 핸드 헬드 캠(소형 카메라

17) Cinequest(2010).

18) S. C. 버나드(2010),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논픽션 영화의 극적 재구성』, 양기석, 신순옥(역)(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76.

19) 인물의 음성을 화면에 싣는다는 뜻으로, 흔히 인물이 말하는 것을 우선 보여준 후에 인물의 대사와 관련된 다른 내용의 화면을 삽입하면서 그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것을 말한다.(Ibid., p.23.) 스크린 ‘속(in)’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목소리를 말하며,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을 회상하는 등장인물의 목소리거나 이야기 속에서 이미지를 국지적으로

라)으로 흔들리는 동선을 그대로 담은 영상기법은 인물을 추적하며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기여한다. 아니아와 폴라로 교차되는 시퀀스는 발레를 통해 경험하는 ‘자유’의 의미를 사회적 맥락에서 풀어어나가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발레 스튜디오에서의 연습장면은 수업의 전체적인 진행 모습보다는 창 밖 외부에서부터 내부로의 클로즈 업을 통해 주인공의 눈빛과 표정을 살림으로써 클래스 속의 존재감을 강조한다. 또한, 인물의 폴 샷을 통해 거리와 균중을 종종 함께 노출시킴으로써 아바나와 마이애미 심장부에서 ‘살아가고 있는’ 발레리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유’라는 큰 주제 안에서 아니아와 폴라가 각각 제시하는 에피소드는 ‘여행’과 ‘공연’으로 요약되며, 이를 둘러싼 고민과 갈등이 담긴 장면을 반복하며 극적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해외 순회공연을 앞둔 아니아의 에피소드는 서사의 핵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쿠바의 폐쇄적인 여행 정책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치가 된다. 영상은 아니아의 발레단 내부 모습과 행정책임자와의 대화를 통해 국가에 귀속된 발레단의 정책을 묘사한다. 행정책임자와의 면담 속 대화는 아니아를 둘러싼 사건과 상황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다음과 같이 짧지만 명료하며 권위적이다.

“이 면담을 하는 이유는 네가 프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멕시코 베라크루즈 공연 멤버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야. 너는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따라서 발레단을 대표하는 그룹과 함께 멕시코로 여행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허가가 되었어.”²⁰⁾

발레단 해외 공연은 정부의 허가 아래 쿠바인이 자국을 떠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이며 이것은 소수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과거의 사건, 즉 수많은 쿠바 발레 무용수들이 해외 공연을 탈출구로 여겨왔으며 이러한 망명 실태에 대한 국가의 내부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대화는 간결하지만 대화 장면과 교차하며 등장하는 이미지는 짧은 대화에 무게를 더하고 맥락을 완성한다. 클로즈업을 통해 면담이 이루어지는 사무실 벽면의 알리사 알론소와 피델 카스트로의 이미지를 동시에 등장시키며 발레의 국가적 후원과 위상을 암시함과 동시에 하늘로 날아가는 새의 솟을 삽입하여 자유가 제한된 국가적 통제의 존재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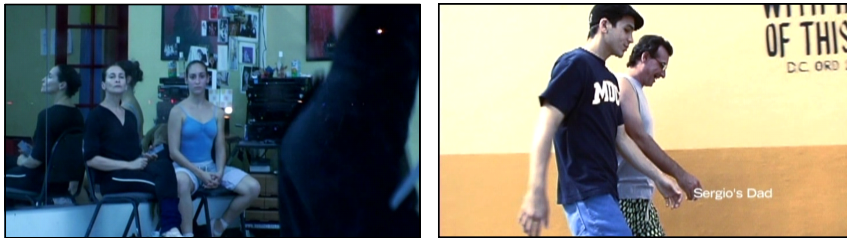
반면 폴라의 에피소드는 망명자의 시각에서 현실의 모습을 담아낸다. 장면은 아바나의 중심에서 마이에미로 옮겨져 분주하고 화려한 도시 속 쿠바인의 삶이 펼쳐진다. 아니아의 가족은 서사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폴라의 이야기는 어머니 로자리오의 삶과 결합되어 하나의 서사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쿠바국립발레단에서 프리마 발레리나로 활약한 로자리오는 폐쇄적인 발레단 시스템과의 갈등으로 쿠바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1995년 스페인 해외 공연 중 망명을 감행한 로자리오는 마이에미에 정착하여 자유와 기회를 얻는다. 로자리오의 망명 스토리는 폴라의 존재 자체와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쿠바 발레단 시절 「코펠리아」 주역을 위해 첫 아이를 유산해야 했던 아픔을 간직한 로자리오에게 두 번째 아이인 폴라는 그녀의 분신으로 각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로페셔널 발레리나를 꿈꾸는 폴라는 로자리오가 간절히 원하는 자유와 기회를 누리고 실천하는 인물로 설정된다. 영상은 폴라의 일상을 추적하되 로자리오의 과거 활동 영상, 망명 기사들이 교차하며 두 모녀 발레리나의 삶을 함께 풀어

설명하는 목소리가 여기 해당될 수 있다(A. 위에(2005), 『시나리오』, 김도훈(역)(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p. 61.).

20) Cinequest(2010).

낸다. 어머니의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받고 또 다른 스튜디오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폴라의 일상
은 발레로 현실의 삶을 꾸려나가는 망명자의 모습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새로운 터전에서 일구어야 하
는 삶은 녹록치 않지만 세대를 잇는 두 모녀의 풍경은 자유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새겨 낸다. 스튜디오
레슨 장면에서 나오는 로زاری오의 잦은 클로즈업은 과거의 회한과 현재의 의지라는 복합적 감정이 수반
된다. 마이애미에서 자란 폴라의 독백은 삶의 장소를 강조한다. 자발적으로 선택할 기회가 열려있는 이
도시와 동시에 어머니의 어려운 선택을 지지하는 동반자로서 현실적 성공을 염원하는 젊은 발레리나의
고민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요르데니스와 세르지오의 에피소드는 크게 ‘대회’라는 주제 안에서 아니아와 폴라의 에피소드와 대
칭을 이룬다. 올림픽 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는 요르데니스의 출전 여정과 프로 데뷔전을 앞둔 세르지오
의 모습은 해외 공연을 기다리는 아니아,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는 폴라의 상황과 유사하다. 영
상은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요르데니스의 대회 출전을 따라가며 쿠바 스포츠인의 망명 실태를 읽어내는
한편 세르지오를 통해 경제적 성취를 원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의 활동을 이야기한다. 폴라와 스튜디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의 관계, 세르지오와 실직한 아버지의 관계를 부각함으로써 발레를
여성의 영역으로 복싱을 남성의 영역으로 두어 극적, 시각적 대비를 더하고자 한 제작자의 의도 또한
엿보인다(〈그림 2〉 참조).²¹⁾



〈그림 2〉 폴라와 어머니 & 세르지오와 아버지

나. 음성과 뒷이야기(backstory)의 삽입

아니아와 폴라의 에피소드를 교차하여 발레 서사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영상의 특징으로는 주
인공이 아닌 다수의 음성과 뒷이야기의 빈번한 삽입을 들 수 있다. 뒷이야기는 다큐멘터리에서 핵심적으
로 다루는 사건을 관객이 잘 이해하도록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혹은 아주 오래 전)의 사건들을 말한다.²²⁾
다큐멘터리 속 주인공의 음성은 주로 일상의 대사, 사적 대화 형태나 간단한 인터뷰식 답변의 일면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그들의 내면과 가치관을 유추하게 한다. 반면 뉴스 기사, 인터뷰, 보이스 오버 나레이터,
자막 등 다양한 형태로 삽입되는 불특정 다수의 음성과 뒷이야기는 다큐멘터리에서 사실성과 창의성을 부
여하는 기제로서의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 삽입되는 주요 음성 및 뒷이야기의 내용과 예는 다음과 같다.

21) 공동감독인 마이크와 브릿은 제작 후기를 통해 쿠바 사회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피력한다. 쿠바에 관한 영화를 찍고 싶었
던 제작팀은 쿠바 당국의 검열로 인해 영화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시적인’ 사진 하나에 매료되었다. 사진은
그 자체가 ‘복서와 발레리나’ 즉 아버지의 어느 황폐한 체육관에서 펀치를 휘두르는 젊은 복서, 그리고 그 옆엔 플리에를
하고 있는 젊은 발레리나의 모습이었다. 복서와 발레리나를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은 쉽게 허락되었으며 제작자는 국가의
자부심으로 칭송받는 동시에 ‘자유’를 얻고 있는 두 상반된 그룹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었다고 전한다. The Georgetown
Voice. <<https://georgetownvoice.com/2004/11/18/the-making-of-i-boxers-and-ballerinas-i/>, 2017. 10. 24.>.

22) S. C. 버나드(2010), p.81.

〈표 3〉 주요 음성의 내용 및 뒷이야기의 예

형식	내용	영상의 예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바 난민 구조에 관한 뉴스 · 조지 부시의 대쿠바 정책 연설 · 쿠바 혁명의 주역 카스트로의 연설 · 쿠바 혁명 기념식 뉴스 		
언론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출 난민의 증언 · 쿠바, 미국 현지 이주민의 진술 · 망명 발레 무용수들의 증언 		
뒷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자리오의 망명 이야기 		

가령 본 다큐멘터리가 아니아와 폴라의 사적 대화로만 채워졌다면 자칫 한 개인의 단편적 삶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칠 수 있다. 하지만 망명이나 혁명과 같은 실제 사건에 대한 다수의 진술이나 기록으로 구성된 음성과 뒷이야기의 삽입은 극과 인물에 복잡성을 높여 의미를 부여하고 사건의 중대함을 시사한다. 영상은 “왜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쿠바를 떠나는가?”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지며 보이스 오버 나레이션의 형태로 시작하지만 나레이터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보이스 오버는 극 전체를 이끄는 해설 위주가 아닌 함축적인 질문이나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하고 그 자리를 쿠바 현지인, 망명자, 그리고 언론의 목소리가 대신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아와 폴라의 일상 사이사이를 채우며 등장인물의 행위와 감정에 맥락을 형성함으로써 서사는 깊이를 더하고 풍부해진다.

제작자의 인터뷰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동시에 등장하는 정형적인 인터뷰 장면을 보여주진 않지만 익명을 요구하는 거리의 대화 과정을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요르테니스의 두 친구는 촬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한다.

여기서는 말의 자유가 없다. 느끼는 것을 말할 수 없다. 우린 요르테니스를 어릴 때부터 알았다. 요르테니스는 자신이 조금 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좋아한다. 운동선수들이 떠나는 이유는 큰돈을 벌 수 있는 전속 계약 때문이다. 훌륭한 선수들이 잘 대접받는다면 왜 쿠바를 떠날까?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고, 그곳 사람들이 계약을 제시하면 그들은 거기 머무른다. 훌륭한 선수들은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쿠바의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

나는 발레 댄서이다. 만약 내가 훌륭한 발레 댄서라면 나는 유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뛰어난 댄서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뛰어나면 나는 유럽에 가게 되고 돈을 벌게 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어리고, 만약 뛰어난 댄서가 된다면 나는 유럽에 갈 것이다.²³⁾

www.kci.go.kr

올림픽 대표선수 선발전에 출전하는 요르데니스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진 이 인터뷰는 자유로운 대화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촬영을 원치 않는 인터뷰이의 태도, 화면을 블랙으로 처리하고 보이스 오버로 음성만 내보내는 조건을 수용하며 진술하는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인터뷰 일련의 과정과 내용은 여러 장면으로 나뉘어 다른 인물들의 시퀀스 사이사이 삽입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의미를 생성시킨다. 인터뷰 내용 자체는 쿠바 현지의 경제적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비추어 지지만, 제작자는 아바나와 마이애미의 삶 중앙에 텍스트를 그대로 삽입하며 현실과 이상에 대한 일방적 판단을 유보하게끔 한다. 즉 인터뷰이에게는 ‘말할 기회’, 감상자에게는 ‘보고 들을 기회’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영상의 맥락과 내용을 더욱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다.

다. 배경의 상징

「복서와 발레리나」영상의 또 다른 특징은 배경 숲과 싼을 사용하여 서사에 직관성을 더한다는 점이다 (<그림 3> 참조). 주로 새, 비행기, 바다, 그래피티, 자동차, 고층건물 등 자연과 도시 풍경에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이미지는 서사의 사이사이에 반복적으로 삽입되어 주제를 강화하고 서사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려한 마이애미 네온사인 아래엔 전당포가 즐비한 리틀 아바나(쿠바 타운)가 있고, 이국적인 아바나 해변 방파제 아래엔 낡은 쿠바 국기가 아로새겨져 있다. 인물의 등장과 함께 종종 드러나는 아바나와 마이애미의 모습은 먼 거리에서 넓은 장면을 담은 익스트림 롱 샷(extreme long shot)을 사용하여 카메라 속도까지 차별화함으로써 대조적인 지역적 특색과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전달 하는데 적극 활용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조적 시퀀스 배열과 다양한 사운드 사이에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복합적인 상징으로 다가오며 시각적 효과를 높인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새와 비행기 샷은 무엇보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에 대한 상징이다. 동시에 낡은 나무 전봇대 위의 새들과 스카이라인을 그리는 비행기의 대조를 통해 서로가 다르게 인식하는 자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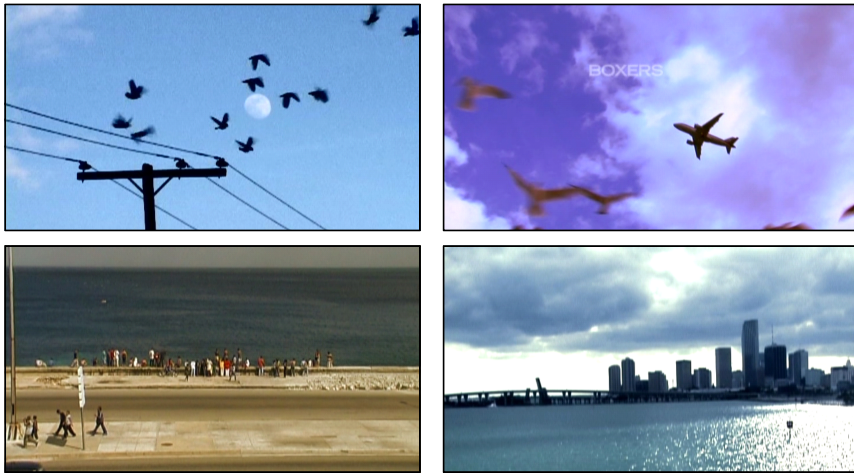
다큐멘터리 곳곳에 등장하는 바다 역시 중의적이다. 아니아와 요르데니스가 친구들과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플라와 세르지오가 자동차로 스쳐 가는 곳이기도 하다. 아바나와 마이애미가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해안은 이국적이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쿠바인들에게는 회한의 장소이다. 난민 보트가 생사를 넘나드는 바다가 있고, 낭만과 휴양을 위한 바다도 있다.²⁴⁾ 아니아와 요르데니스의 에피소드에서 바다는 또 다른 국경을 상징하기도 한다. 아바나의 명소인 말레콘(malecón) 해변 산책로는 마이애미를 마주하며 불과 3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냉전의 보루이자 두 세계의 국경”²⁵⁾이라는 비유처럼 20세기 초 미 군정에 의해 건설된 8km 말레콘 방파제는 미국과 쿠바 간의 이념 갈등과 자국 내 전쟁과 혁명의 역사가 새겨진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쿠바의 젊은이에게 말레콘은 단순히 산책로가 아니다.

23) Cinequest(2010).

24) 바다는 쿠바-미국 양국간 정치적 대립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소이다. 양국의 수교가 단절되고 제재가 강화된 시절에도 미국은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쿠바인에게 ‘피란권’을 주었고 이후 1년의 체류 기간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해왔다. 바다는 쿠바인들이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가장 용이한 장소였으며 냉전이 종식된 후 그 빈도는 더욱 극심해졌다. 쿠바의 지속적인 항의로 1995년 클린턴 정부는 ‘젖은 발, 마른 발(wet foot, dry foot)’ 정책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은 마른 발로 미국 땅을 디디면 체류 권한을 주지만 해상에서 발견되면 쿠바로 즉각 돌려보낸다는 일종의 타협안이었다. 다큐멘터리 속 수 많은 바다 풍경은 오랜 세월 쿠바인들이 겪어 온 ‘바다 위의 절박함’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5) Miami Herald, <<https://www.miamiherald.com/news/nation-world/world/americas/cuba/article223647275.html>, 2018. 4. 12.>.

크고 넓게 탁 트인 풍경을 자랑하는 그곳은 해방, 젊음, 신성함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감정 또한 내포하고 있다.²⁶⁾



〈그림 3〉 배경 씬의 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새-비행기-마이애미-아바나)

바다와 방파제처럼 자연 배경을 통해 지역색과 갈등의 역사를 읽어내고자 했다면, 결말 부분 콘크리트 벽을 배경으로 행해지는 등장인물들의 독백장면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룡 솟으로 담긴 각각의 인물은 그래피티가 어울릴 법한 낡은 벽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일종의 내면을 드러내는 독백을 한다.



〈그림 4〉 등장인물의 독백

요르데니스: 나는 요르데니스 유가스 에르난데스입니다. 전국 대회에서 여섯 번 우승했죠. 올해의 주니어 복서였고 이제 주니어 월드 챔피언이죠. 120승 10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올림픽 챔피언이 될 거예요. 언제나 가장 뛰어난 최고의 복서 말이죠.
세르지오: 나는 나의 복싱 체육관을 열 거예요. 복싱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쉐도우 복싱을 받

26) Cinequest(2010).

복하며) 난 다양한 사람들과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왔고 수많은 선수를 너다운 시켰죠.
 아니아: (손바닥으로 벽을 쳐 장단을 맞추며 노래한다) 봄이 오면 그녀는 사랑에 빠지겠죠...
 폴 라: 춤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죠. 우울할 때, 외로울 때, 불안할
 때... 춤을 추면 그 모든 걸 잊어요.

이처럼 자유로운 행동과 말투로 구성된 독백은 순차적 시간 배열의 극적 서사라면 도입부에 어울릴 자기소개에 가깝지만 에피소드의 결말 직전에 삽입됨으로써 내면에 간직한 꿈과 현실의 연결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하는 장치로 보인다.

VI. 결론

본 연구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복서와 발레리나」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현대 사회의 국경 및 이념이 체화된 발레의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서사학 기반의 내러티브 연구는 ‘기-승-전-결’이라는 완결 구조를 통해 닫힌 결말에 집중하는 반면, 현대적 개념인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매체를 통합하여 내러티브의 현장성과 상호소통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대두된 문화컨텐츠 영역에서 스토리텔링은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의 기교와 전략은 문자 기반 서사학의 권위를 해체하여 열린 자세를 요구하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사회학적 함의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사실 기반의 역동적 스토리텔링이 그려내는 춤문화와 그 이면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미에 보다 집중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복서와 발레리나」 스토리텔링의 특성은 실제 인물의 삶을 추적하는 현장성을 강조하지만 내러티브는 분절적이면서도 초월적이다. 즉 이야기의 내용을 평면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1)진술과 대화 위주의 시퀀스 대조, 2)주인공 세대를 넘어선 서사와 역사적 실존 자료, 3)정치적 함의를 담은 장소성 등을 강조하며 상징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창의적인 ‘이야기 행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감상자의 열린 자세와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유를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 제작자는 어느 한 정치적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 상반된 이념이 공통적으로 지닌 ‘빛과 그림자’를 제시한다. 영상은 전지적 해설이나 가치판단이 들어있는 견해를 배제하고 철저히 각 개인의 내러티브와 역사적 사실을 함께 엮음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큐멘터리에서 내러티브는 정확한 전달과 설득이라는 수사적 당위성을 위해 존재한다.²⁷⁾ 실제의 창의적 표현에 있어 미학적 요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극영화가 추구하는 허구나 미학적 관점과는 거리가 생기는 부분이다. 따라서 「복서와 발레리나」에서 발레는 발레가 지닌 예술로서의 미적 가치 그 자체보다는 인간이 지닌 꿈과 자유의 의미를 세계 속에서 다각도로 조명하게끔 하는 주요 매개가 된다.

이처럼 개인, 세대, 역사를 넘나드는 스토리텔링은 발레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서사를 그려낸다. 오랜 역사와 체계화된 교수법을 통해 발레는 세계화에 용이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만, 쿠바의 발

27) 형대조(2014),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찰, 『영화연구』 62, p.447.

레 부흥은 본질적으로 쿠바 혁명이 체화된 산물이며 구소련과의 긴밀한 교류 속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발레는 정부의 지지 속에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다른 정치적 진영과의 교류를 가능케 하며, 이는 비록 한정적이지만 개인에게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국적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아니아의 일상은 자유가 제한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권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세계 속의 자신,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아니아와는 달리 어머니의 망명을 통해 새로운 국적을 얻은 폴라 역시 또 다른 관점에서 ‘같은’ 문제를 숙고한다. 망명에 성공한 쿠바인들은 종종 성공한 혁명의 직후와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모두가 희망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그린다. 그러나 그들은 아바나에는 없던 자유를 얻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꿈을 이루고 더불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난관을 경험한다. 결과적으로 다큐멘터리는 어느 정치 진영과 사회제도의 옳고 그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기구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문제들을 발레 문화가 지닌 보편성 및 특수성과 연계하여 다각도로 의미 있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격동의 역사와 문화를 전부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쿠바의 춤문화, 특히 발레의 독특한 사회적 위상과 실천은 그 자체로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의 삶에 묻어있는 공공의 역사를 열린 시각으로 풀어낸 본 다큐멘터리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 많은 시사점과 다양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버나드, S. C.(2010).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논픽션 영화의 극적 재구성』. 양기석, 신순옥(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보이드, B.(2009). 『이야기의 기원』. 남경태(역). 서울: 휴머니스트. 2013.
- 살몽, C.(2008).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 정신을 포맷하는 장치』. 류은영(역). 서울: 현실문화. 2010.
- 오원환(2014). 『다큐멘터리 스타일』.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위에, A(2005). 『시나리오』. 김도훈(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 Roca, O(2010). *Cuban Ballet*. Layton: Gibbs Smith.
- 류은영(2009).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14: 229-262.
- 신정환(2000). 쿠바 문화의 기원과 쿠바 문학.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1: 89-105.
- 이영주, 김정희(2018). 댄스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기호학적 의미: 뉴욕시티발레단의 <city.ballet.>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6: 169-185.
- 한지영, 김말복(2018). 댄스 다큐멘터리 영화 「댄싱 베토벤 Dancing Beethoven」(2016)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한 댄스필름 논의. 『무용예술학연구』, 71: 1-25.
- 형대조(2014).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찰. 『영화연구』, 62: 423-452.
- Bernard, S. C(2006). Story First: Narrative in Documentary. *Studentfilmmakers*, April: 22-27.
- Kerrigan, S. and P. McIntyre(2010). The ‘Creative Treatment of Actuality’: Rationalizing and Reconceptualizing the Notion of Creativity for Documentary Practice. *Journal of Media Practice*, 11(2): 111-130.
- Cinequest(2010). *Boxers and Ballerinas*. San Jose: Cinequest. (DVD, 83 minutes).
- Horizontes. <<https://www.youtube.com/watch?v=o0tdR4NtM60>, 2018. 3. 16.>.
- Miami Herald. <<https://www.miamiherald.com/news/nation-world/world/americas/cuba/article223647275.html>, 2018. 4. 12.>.
- National Public Radio(NPR). <<https://www.npr.org/2014/06/14/321952981/why-cuban-ballet-dancers-risk-defecting>, 2018. 3. 22.>.
- Public Broadcasting Service(PBS). <<http://www.pbs.org/independentlens/mirrordance/balletcuba.html>, 2018. 5. 2.>.
- The Georgetown Voice. <<https://georgetownvoice.com/2004/11/18/the-making-of-i-boxers-and-ballerinas-i/>, 2017. 10. 24.>.

논문투고일 2019. 02. 15
심사일 2019. 02. 20
심사완료일 2019. 03. 13

Embodying the Borders and Ideology: Cuban Ballet in Documentary Storytelling

Roh, YoungJae

Researcher in IAC, Dong-A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embodiment of the concept of national borders and ideology through an analysis of the documentary film, *Boxers and Ballerin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n narratology and image analysis of the documentary from a Structuralist perspective, the study discusses how this sharp-eyed documentary storytelling conveys the profound meaning of a nation and human rights while contrasting the lives of young athletes and ballerinas as Cubans and Cuban-Americans. Even though ballet is generally considered the most classical and institutionalized European art form today, the collaborative work of the directors, cinematographers, and editors of *Boxers and Ballerinas* is focused more on ballet as the symbolic locus of freedom and individual dreams. Finally, this study examines ballet as a socio-political practice and mode of communication by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notative visual narratives inherent in the documentary storytelling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relationship.

Keywords: Documentary(다큐멘터리), Storytelling(스토리텔링), Narrative(내러티브), Cuban ballet(쿠바 발레), Boxers and ballerinas(복서와 발레리나)